03 음악산업

제1절 음악산업 총괄

2013년 음악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은 안정적인 매출액과 수출액을 기반으로 한 중보합세 혹은 소폭 상승세로 볼 수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2012년 잠시 주춤한 것으로 보였던 전체 매출과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각각 7.1%, 18% 증가한 점이 무척 고무적이다. 이렇듯 2010년과 2011년에 걸쳐 아시아시장을 점령하며 커다랗게 몸집을 불린 케이-팝 붐의 패기와 저력이 다소 주춤한 게 아니냐는 우려를 잠재우며 다시 한 번 재도약의 신호탄에 불을 붙인 건 다름 아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었다. 한국과 아시아 지역뿐만이 아닌 전 세계를 호령했던 이 놀라운 붐은 지금까지 존재해 온 케이-팝 지형도를 북미권을 비롯한 서구권까지 넓히는데 더없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차후 지역별 수출액 그래프를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그간 언어적, 문화적 한계로 진출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던 북미/유럽권의 문이 조금씩 열려 가는 것을 수치로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인 산업 규모가 커져가는 것에 비해 사업체와 종사자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추측된다. 하나는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오프라인 매체와 업체의 감소, 다른 하나는 케이-팝 즉 아이돌 팝의 지속적인 강세로 인한 중소규모 이하 사업자들의 업계 이탈이다. 실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음반이나 DVD 영상물 등 물리적 매체 제작유통의 빈자리는 음원 유통사 등 월등히 높은 효율을 자랑하는 온라인 중심의 시장으로 빠르게 잠식되어 가고 있다. 또한 전체 산업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돌 팝 위주로 고정되어 버린 시장구조는 작은 규모로 음반을 제작/유통하는 인디 레이블이나 해외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음악을 소개하는 소규모 음반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다만 예상보다 적은 0.7%(사업체 수)와 1.2%(종사자수)의 감소에 그친 건 2013년 그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음악 공연계와 뮤지컬계의 호황 덕분으로 보인다. 7월에서 8월에 걸쳐 채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무려 5개의 대형 록 페스티벌이 열리며 개국 이래 가장 큰 호황을 맞았던 대중음악공연계와 '위키드', '사랑과 영혼', '카르멘', '맨 오브 라만차' 등 라이선스 한 대형 뮤지컬들의 흥행 성공은 물론 '디셈버', '베르테르의 슬픔' 등 국내 창작 뮤지컬까지 골고루 관객들을 찾았던 뮤지컬계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한 해였다.

2013년 음악산업의 사업체 수는 36,863개, 종사자 수는 7만 7,45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4조 2,772억 원, 부가가치액은 1조 7,049억 원, 부가가치율은 39.9%로 나타났다. 수출액은 2억 7,733만 달러, 수입액은 1,296만 달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악산업의 사업체 수는 2009년 3만 8,259개에서 2013년 3만 6,863개로 소폭 감소했는데 이것은 2009에서 2013년까지 연평균 0.9% 감소한 결과이다. 종사자 수는 연평균 0.3% 증가하여, 2009년 7만 6,539명에서 2013년 7만 7,456명을 나타냈다. 매출액은 연평균 11.8% 증가하여 2009년 2조 7,408억 원에서 2013년에는 4조 2,772억 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액은 2009년 1조 228억 원에서 2013년 1조 7,049억 원으로 연평균 13.6% 증가, 전년대비 2.5% 증가했다. 수출액은 2009년에 3,127만 달러, 2010년에 8,326만 달러, 2011년 1억 9,611만 달러, 2012년 2억 3,510만 달러, 2013년 2억 7,733만 달러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표 3-3-1▐ 음악산업 총괄

구분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부가가치액 (백만 원)	부가가치율 (%)	수출액 (천 달러)	수입액 (천 달러)
2009년	38,259	76,539	2,740,753	1,022,766	37.3	31,269	11,936
2010년	37,634	76,654	2,959,143	1,142,896	38.6	83,262	10,337
2011년	37,774	78,181	3,817,460	1,597,663	41.9	196,113	12,541
2012년	37,116	78,402	3,994,925	1,663,764	41.7	235,097	12,993
2013년	36,863	77,456	4,277,164	1,704,877	39.9	277,328	12,961
전년대비증감률(%)	△0.7	△1.2	7.1	2.5	–	18.0	△0.2
연평균증감률(%)	△0.9	0.3	11.8	13.6	–	72.6	2.1

음악산업의 2013년 업체당 평균매출액은 1억 1,600만 원, 종사자 1인당 평균매출액은 5,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중분류별로 업체당 평균매출액을 살펴본 결과, 온라인 음악 유통이 37억 1,6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매출액을 나타냈고, 음반 복제 및 배급업이 16억 3,400만 원으로 두 번째로 높은 매출액을 나타냈으며, 다음으로 음악 공연업이 12억 2,100만 원, 음악 도소매업이 6억 5,000만 원, 음악제작업이 6억 1,900만 원,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이 3억 7,700만 원, 마지막으로 노래연습장 운영업 4,4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분류별로 보면, 업체당 평균매출액이 가장 높은 업종이 인터넷/모바일 음악 서비스업으로 47억 6,300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음반 배급업이 31억 3,400만 원, 음원대리 중개업이 25억 7,10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중분류별로 1인당 평균매출액을 살펴본 결과, 업체당 평균매출액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음악 유통업이 4억 3,1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매출액을 나타냈고, 음악 복제 및 배급업의 1인당 평균매출액이 3억 8,100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노래연습장 운영업의 1인당 평균매출액은 2,200만 원으로 가장 낮은 매출액을 나타냈다. 소분류별로 1인당 평균매출액을 보면,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업이 4억 8,70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음원대리 중개업이 4억 8,500만 원, 음반 배급업이 4억 3,900만 원, 음반 도매업이 3억 4,700만 원, 음반 복제업이 3억 2,9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사업체 수에 비해 월등히 높은 매출과 1인당 평균 매출액을 보여주고 있는 음반 배급업과 온라인 음악 유통업이다. 음반 배급업의 경우 총 19개의 사업체가 31억 원 대의 평균 매출액을, 온라인 음악 유통업 가운데 인터넷/모바일 음악 서비스업의 경우 총 185개의 업체가 47억 원 이상의 평균 매출을 보이고 있다. 1인당 평균으로 계산해도 각각 약 4억 원 이상의 높은 매출액을 내고 있다는 통계로 나타난다. 이는 단순히 해당 분야의 생산성이 높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겠지만, 타 산업 분야에 비해 독과점 수익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실제로 SM과 YG로 대표되는 대형 기획사와 CJ E&M, 엠넷, 로엔 엔터테인먼트, 멜론 등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정도의 업체들이 해당 분야의 시장을 최소 50% 이상 장악한 채 독점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음악 산업 내 해당 분야의 합리적인 운영을 막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중요한 문제로 수 년 간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3-3-2 음악산업 사업체당 평균매출액 및 종사자당 평균매출액 현황(2013년)

중분류	소분류	사업체 수 (개)	종사자 수 (명)	매출액 (백만 원)	업체당 평균매출액 (백만 원)	1인당 평균매출액 (백만 원)
음악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업	1,116	2,537	724,470	649	286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	130	462	46,990	361	102
	소계	1,246	2,999	771,460	619	257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33	62	14,163	429	228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7	16	914	131	59
	소계	40	78	15,077	377	194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47	147	48,330	1,028	329
	음반 배급업	19	136	59,539	3,134	439
	소계	66	283	107,869	1,634	381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57	147	50,931	894	347
	음반 소매업	179	528	102,374	572	194
	소계	236	675	153,305	650	227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인터넷/모바일 음악서비스업	185	1,811	881,207	4,763	487
	음원대리 중개업	38	201	97,694	2,571	485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제작및제공업(CP)	62	446	80,186	1,293	180
	소계	285	2,458	1,059,087	3,716	431
음악 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514	3,163	616,820	1,200	195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33	230	51,080	1,548	222
	소계	547	3,393	667,900	1,221	197
중합계		2,420	9,886	2,774,698	1,147	281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34,443	67,570	1,502,466	44	22
전체		36,863	77,456	4,277,164	116	55

제2절 음악산업 사업체 수 현황[78]

2013년 음악산업의 사업체 수는 3만 6,863개로 전년대비 0.7% 감소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분류별로 보면, 노래연습장 운영업 사업체 수가 3만 4,443개로 전체 사업체의 93.4%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대비 0.6% 감소했으며, 연평균 1.2% 감소한 수치이다. 음악 기획 및 제작업 사업체 수는 1,116개(3.0%)로 전년대비 6.4% 감소, 연평균 3.3% 감소했고,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사업체 수는 514개(1.4%)로 전년대비 5.8% 증가, 연평균 3.4% 증가했다. 2012년에 비해 가장 크게 감소한 업종은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으로 전년대비 25.0% 감소, 연평균 17.9% 감소했으며,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제작 및 제공업은 전년대비 13.9% 감소, 연평균 5.2%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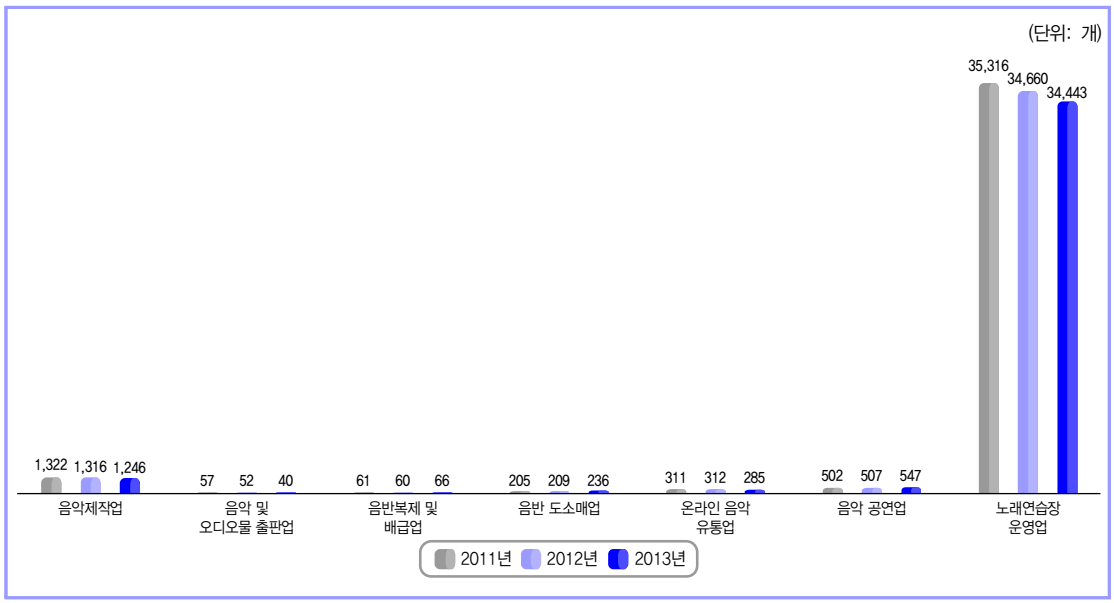
표 3-3-3 음악산업 업종별 연도별 사업체 수 현황

(단위: 개)

중분류	소분류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음악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업	1,193	1,192	1,116	3.0	△6.4	△3.3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	129	124	130	0.4	4.8	0.4
	소계	1,322	1,316	1,246	3.4	△5.3	△2.9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49	44	33	0.1	△25.0	△17.9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8	8	7	–	△12.5	△6.5
	소계	57	52	40	0.1	△23.1	△16.2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46	45	47	0.1	4.4	1.1
	음반 배급업	15	15	19	0.1	26.7	12.5
	소계	61	60	66	0.2	10.0	4.0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46	54	57	0.2	5.6	11.3
	음반 소매업	159	155	179	0.4	15.5	6.1
	소계	205	209	236	0.6	12.9	7.3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인터넷/모바일 음악서비스업	199	197	185	0.5	△6.1	△3.6
	음원대리 중개업	43	43	38	0.1	△11.6	△6.0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제작및제공업(CP)	69	72	62	0.3	△13.9	△5.2
	소계	311	312	285	0.8	△8.7	△4.3
음악 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481	486	514	1.4	5.8	3.4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21	21	33	0.1	57.1	25.4
	소계	502	507	547	1.5	7.9	4.4
중합계		2,458	2,456	2,420	6.6	△1.5	△0.8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35,316	34,660	34,443	93.4	△0.6	△1.2
합계		37,774	37,116	36,863	100.0	△0.7	△1.2

78) 인터넷 음반 소매업 제외

그림 57 음악산업 업종별 연도별 사업체 수 현황



2013년 음악산업의 지역별 사업체 수를 보면, 서울의 사업체 수가 8,244개로 전체의 22.4%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0.1% 감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0.3% 감소한 수치이다. 6개 광역시의 사업체 수는 1만 1,038개로 전체의 29.9%를 차지했고, 전년대비 3.3% 증가했다. 9개 도 중에서는 경기도의 사업체 수가 7,679개로 전체의 20.8%를 차지해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이는 전년대비 1.1% 감소, 연평균 1.0% 감소한 수치이다. 6개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의 사업체 수가 2,470개로 전체의 6.7%를 차지해 다른 도시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인천의 사업체 수는 전년대비 4.9% 증가, 연평균 0.9% 증가했다.

▌표 3-3-4▐ 음악산업 지역별 업종별 사업체 수 현황(2013년)

(단위 : 개)

지역 \ 업종		음악제작업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도소매업	
		음악 기획 및 제작업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음반 복제업	음반 배급업	음반 도매업	음반 소매업
서울		738	90	24	7	31	15	38	32
6개 시	부산	44	5	–	–	8	–	3	14
	대구	24	6	3	–	2	–	3	10
	인천	18	3	–	–	2	–	1	6
	광주	16	3	–	–	–	–	–	9
	대전	16	3	–	–	–	–	1	5
	울산	5	2	–	–	1	–	–	7
	소계	123	22	3	–	13	–	8	51
9개 도	경기도	117	11	6	–	3	4	10	22
	강원도	25	1	–	–	–	–	–	9
	충청북도	9	2	–	–	–	–	–	7
	충청남도	22	–	–	–	–	–	–	10
	전라북도	17	–	–	–	–	–	–	4
	전라남도	12	1	–	–	–	–	–	10
	경상북도	25	3	–	–	–	–	–	13
	경상남도	21	–	–	–	–	–	1	12
	제주도	7	–	–	–	–	–	–	9
	소계	255	18	6	–	3	4	11	96
합계		1,116	130	33	7	47	19	57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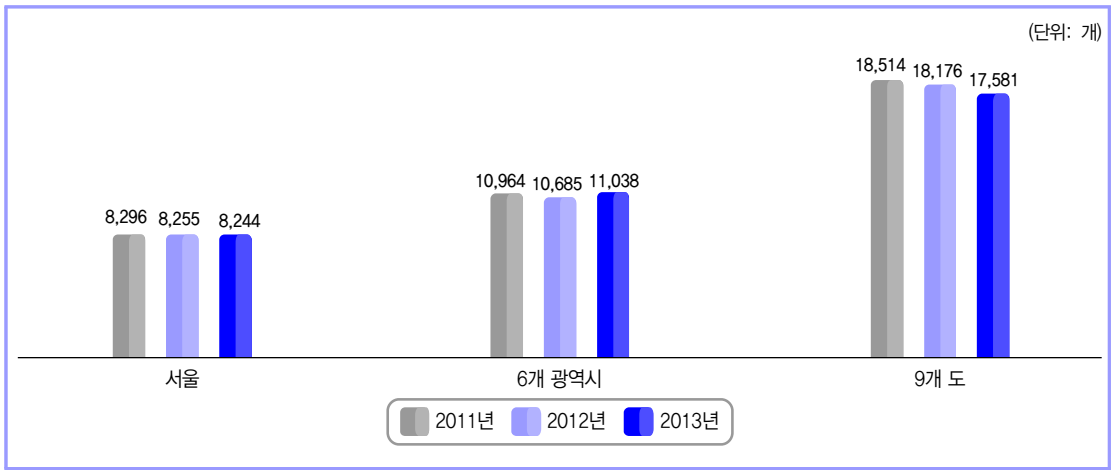
지역 \ 업종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음악 공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합계	비중 (%)
		인터넷/모바일 음악서비스업	음원대리 중개업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서울		145	37	58	285	22	6,722	8,244	22.4
6개 시	부산	4	–	–	30	1	2,358	2,467	6.7
	대구	3	–	–	19	–	2,220	2,290	6.2
	인천	2	–	–	14	2	2,422	2,470	6.7
	광주	4	–	–	13	–	1,364	1,409	3.8
	대전	–	–	1	15	–	1,326	1,367	3.7
	울산	–	–	–	4	–	1,016	1,035	2.8
	소계	13	–	1	95	3	10,706	11,038	29.9
9개 도	경기도	21	1	3	52	3	7,426	7,679	20.8
	강원도	1	–	–	21	1	938	996	2.7
	충청북도	–	–	–	10	1	1,160	1,189	3.2
	충청남도	–	–	–	8	1	1,363	1,404	3.8
	전라북도	1	–	–	9	–	907	938	2.5
	전라남도	1	–	–	7	1	1,051	1,083	2.9
	경상북도	1	–	–	7	–	1,866	1,915	5.2
	경상남도	2	–	–	16	1	2,006	2,059	5.6
	제주도	–	–	–	4	–	298	318	0.9
	소계	27	1	3	134	8	17,015	17,581	47.7
합계		185	38	62	514	33	34,443	36,863	100.0

표 3-3-5 음악산업 지역별 연도별 사업체 수 현황

(단위: 개)

지역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증감률(%)	연평균증감률(%)
서울		8,296	8,255	8,244	△0.1	△0.3
6개 시	부산	2,473	2,426	2,467	1.7	△0.1
	대구	2,309	2,243	2,290	2.1	△0.4
	인천	2,426	2,354	2,470	4.9	0.9
	광주	1,344	1,315	1,409	7.1	2.4
	대전	1,343	1,308	1,367	4.5	0.9
	울산	1,069	1,039	1,035	△0.4	△1.6
	소계	10,964	10,685	11,038	3.3	0.3
9개 도	경기도	7,829	7,766	7,679	△1.1	△1.0
	강원도	1,332	1,304	996	△23.6	△13.5
	충청북도	1,152	1,120	1,189	6.2	1.6
	충청남도	1,433	1,393	1,404	0.8	△1.0
	전라북도	911	885	938	6.0	1.5
	전라남도	1,149	1,135	1,083	△4.6	△2.9
	경상북도	2,058	1,997	1,915	△4.1	△3.5
	경상남도	2,277	2,214	2,059	△7.0	△4.9
	제주도	373	362	318	△12.2	△7.7
	소계	18,514	18,176	17,581	△3.3	△2.6
합계		37,774	37,116	36,863	△0.7	△1.2

그림 58 음악산업 지역별 연도별 사업체 수 현황



제3절 음악산업 매출액 현황[79]

2013년 음악산업의 매출액은 4조 2,772억 원으로 전년대비 7.1% 증가했으며,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연평균 5.8% 증가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났다.

중분류별로 보면, 음악제작업 매출액은 7,715억 원으로 전년대비 13.4% 증가, 연평균 11.6% 증가했고,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매출액은 151억 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 연평균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반 도소매업 매출액은 1,533억 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 연평균 1.0% 증가했다. 온라인 음악 유통업 매출액은 1조 591억 원으로 전년대비 11.2% 증가, 연평균 9.7% 증가했다. 음악 공연업 매출액은 6,679억 원으로 전년대비 14.9% 증가, 연평균 1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래연습장 운영업 매출액은 1조 5,025억 원으로 전년대비 0.6% 감소했고 연평균 0.6% 감소했다. 중분류 중 전년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14.9% 증가한 음악 공연업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13.4% 증가한 음악제작업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에서도 음악 공연업이 12.0% 증가하여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음악제작업이 11.6% 증가하여 그 뒤를 이었다. 소분류별로 보면,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이 전년대비 15.6% 증가하며 가장 큰 폭의 성장세를 나타냈으며, 음악 기획 및 제작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13.9% 증가, 인터넷/모바일 음악서비스업 매출액은 전년대비 13.0% 증가하여 그 뒤를 이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으로 연평균 12.4% 증가했으며, 다음으로 음악 기획 및 제작업 매출액은 연평균 11.9% 증가, 인터넷/모바일 음악서비스업 매출액은 연평균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산업이 전반적으로 연도별 매출에 있어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케이-팝 시장의 꾸준한 상승세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 특히 음악 제작업에 있어서의 높은 증가율이 눈에 띄는데, 이는 지난 수 년 간 양과 질적인 측면 모두에서 눈부신 발전을 기록하며 단숨에 21세기 대한민국의 산업 역군이 되어버린 케이-팝의 영향을 떼어 놓고는 말할 수 없다.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업은 물론 사양세에 들어섰다는 음반 배급업 역시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내수 시장의 활성화 보다는 2013년 새롭게 개발된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량 상승이 호재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보다 글로벌해 진 시장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증거로 SM 엔터테인먼트의 남성 그룹 엑소(EXO)의 데뷔앨범을 들 수 있다. 12년 만에 밀리언셀러 자리에 오르며 대중음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앨범은 한국 내 소비량만큼 중국 내 판매량이 높았던 것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외에도 2011~2012년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인 2012~2013년 공연계의 성장이 눈에 띈다. 실제로 7월 말에서 8월 중순, 단 3주의 기간 동안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지산 월드 록 페스티벌, 안산 밸리 록 페스티벌, 슈퍼소닉 페스티벌, 현대카드 시티브레이크 등 총 5개의 대형 공연이 열리고 제이슨 므라즈, 데미언 라이스, 미카, 시규어 로스, 크라프트베르크 등 대형 뮤지션들의 단독 공연이 줄을 이었던 2013년은 단지 그 음악가들의 이름과 공연 횟수만으로도 해당 연도가 한국 공연계에 얼마나 풍성한 한 해였는지를 증명한다.

79) 인터넷 음반 소매업은 통계청 "사이버쇼핑동향조사(2014)"를 인용하고 음반 소매업에 병합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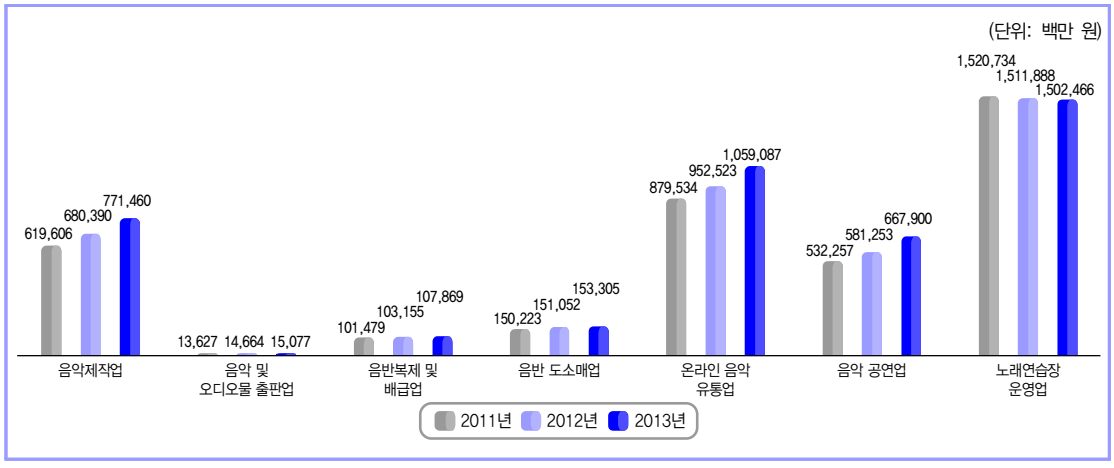
표 3-3-6 음악산업 업종별 연도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중분류	소분류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음악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업	579,041	635,910	724,470	16.9	13.9	11.9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	40,565	44,480	46,990	1.1	5.6	7.6
	소계	619,606	680,390	771,460	18.0	13.4	11.6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12,667	13,668	14,163	0.3	3.6	5.7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960	996	914	–	△8.2	△2.4
	소계	13,627	14,664	15,077	0.4	2.8	5.2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45,233	46,529	48,330	1.1	3.9	3.4
	음반 배급업	56,246	56,626	59,539	1.4	5.1	2.9
	소계	101,479	103,155	107,869	2.5	4.6	3.1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49,449	50,541	50,931	1.2	0.8	1.5
	음반 소매업	100,774	100,511	102,374	2.4	1.9	0.8
	소계	150,223	151,052	153,305	3.6	1.5	1.0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인터넷/모바일 음악서비스업	714,845	780,121	881,207	20.6	13.0	11.0
	음원대리 중개업	86,662	91,279	97,694	2.3	7.0	6.2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제작및제공업(CP)	78,027	81,123	80,186	1.9	△1.2	1.4
	소계	879,534	952,523	1,059,087	24.8	11.2	9.7
음악 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488,352	533,646	616,820	14.4	15.6	12.4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43,905	47,607	51,080	1.2	7.3	7.9
	소계	532,257	581,253	667,900	15.6	14.9	12.0
중합계		2,296,726	2,483,037	2,774,698	64.9	11.7	9.9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1,520,734	1,511,888	1,502,466	35.1	△0.6	△0.6
합계		3,817,460	3,994,925	4,277,164	100.0	7.1	5.8

※ 2010년까지는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은 스마트 앱을 통한 매출이 아닌 이동통신 3사의 기존 피쳐폰 음악 매출액(벨소리, 통화연결음, 스트리밍, 음원다운로드 매출액)이며, 스마트 앱을 통한 매출은 인터넷 음악 서비스업에 포함시켰으나, 2011년부터 스마트폰(올레마켓, T-store, OZ-스토어 등)을 통해 발생한 매출액은 모바일 음악 서비스업 매출액에 포함시켰으므로 직접비교는 불가

그림 59 음악산업 업종별 연도별 매출액 현황



2013년 음악산업의 지역별 매출액 현황을 보면, 음악산업 전체 매출액의 61.7%인 2조 6,405억 원이 서울의 매출액으로 집계되었고, 그 다음으로 매출액이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5,687억 원(13.4%), 경상북도가 2,603억 원(6.1%), 대구가 1,709억 원(4.0%), 부산이 1,691억 원(4.0%), 인천이 996억 원(2.3%)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 지역은 매출액이 1,000억 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음악산업 매출액은 서울의 매출액(61.7%)이 6개 시의 매출액(12.2%)과 9개 도의 매출액(26.1%)의 합 보다 훨씬 높았으며, 서울, 인천, 경기도를 합쳐 수도권으로 정의하고, 수도권 매출액(77.4%)과 비수도권 매출액(22.6%)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지역 편중 현상이 보다 잘 부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3-7▐ 음악산업 지역별 업종별 매출액 현황(2013년)

(단위: 백만 원)

지역 \ 업종		음악제작업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도소매업	
		음악 기획 및 제작업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음반 복제업	음반 배급업	음반 도매업	음반 소매업
서울		448,572	33,314	12,351	914	27,397	42,854	28,103	78,878
6개 시	부산	5,907	597	–	–	3,581	–	687	1,902
	대구	45,283	500	218	–	2,535	–	2,768	1,591
	인천	4,982	2,708	–	–	2,555	–	–	1,606
	광주	5,875	70	–	–	–	–	–	224
	대전	2,587	262	–	–	–	–	1,122	833
	울산	–	–	–	–	–	–	–	641
	소계	64,634	4,137	218	–	8,671	–	4,577	6,797
9개 도	경기도	148,101	9,154	1,593	–	12,263	16,685	17,787	10,291
	강원도	19,935	–	–	–	–	–	–	709
	충청북도	2,291	–	–	–	–	–	–	738
	충청남도	2,637	–	–	–	–	–	–	849
	전라북도	–	–	–	–	–	–	–	640
	전라남도	2,197	–	–	–	–	–	–	707
	경상북도	3,801	384	–	–	–	–	–	1,224
	경상남도	31,511	–	–	–	–	–	465	1,286
	제주도	792	–	–	–	–	–	–	255
	소계	211,265	9,538	1,593	–	12,263	16,685	18,252	16,699
합계		724,470	46,990	14,163	914	48,330	59,539	50,931	102,374

지역 \ 업종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음악 공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합계	비중 (%)
		인터넷/모바일 음악서비스업	음원대리 중개업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서울		513,382	82,796	75,418	322,014	37,538	937,011	2,640,542	61.7
6개 시	부산	48,808	–	–	54,157	2,479	50,997	169,115	4.0
	대구	34,295	–	–	41,029	–	42,688	170,907	4.0
	인천	34,557	–	–	8,100	2,091	43,012	99,611	2.3
	광주	821	–	–	4,602	–	6,026	17,618	0.4
	대전	–	–	1,956	3,853	–	22,331	32,944	0.8
	울산	–	–	–	14,104	–	17,200	31,945	0.7
	소계	118,481	–	1,956	125,845	4,570	182,254	522,140	12.2
9개 도	경기도	54,189	14,898	2,811	68,097	5,833	206,998	568,700	13.4
	강원도	–	–	–	8,419	429	23,392	52,884	1.2
	충청북도	–	–	–	3,655	–	19,782	26,466	0.6
	충청남도	–	–	–	3,929	1,788	22,770	31,973	0.7
	전라북도	–	–	–	13,141	–	17,166	30,947	0.7
	전라남도	–	–	–	18,230	922	18,966	41,022	1.0
	경상북도	195,155	–	–	26,904	–	32,812	260,280	6.1
	경상남도	–	–	–	25,406	–	34,479	93,147	2.2
	제주도	–	–	–	1,180	–	6,836	9,063	0.2
	소계	249,344	14,898	2,811	168,961	8,972	383,201	1,114,482	26.1
합계		881,207	97,694	80,186	616,820	51,080	1,502,466	4,277,16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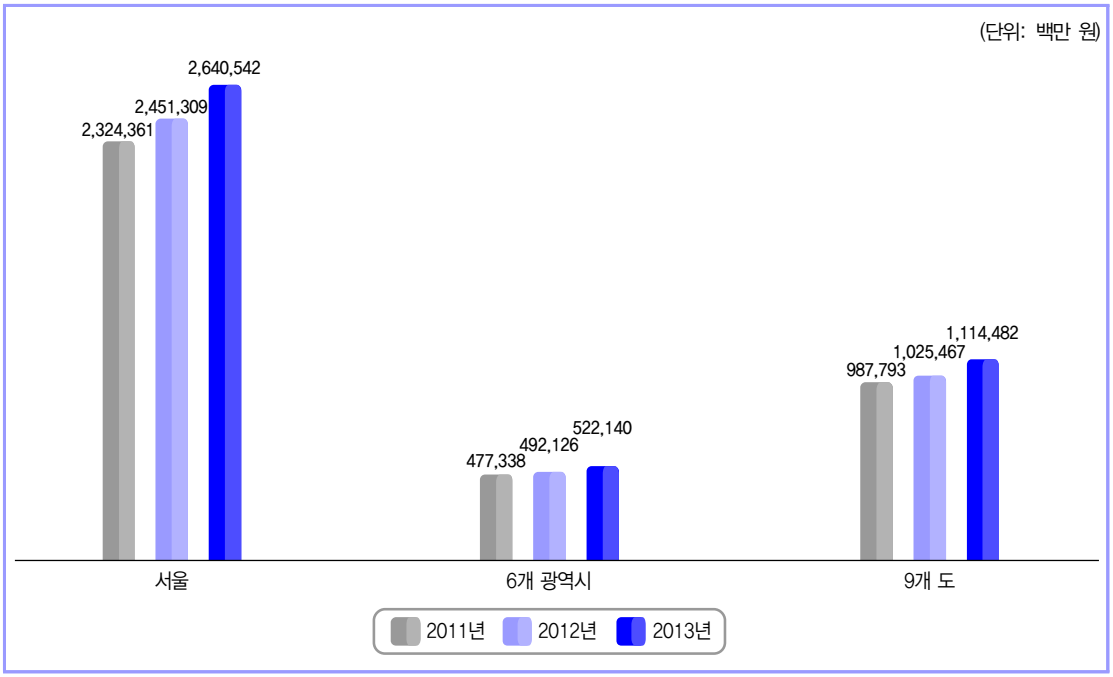
연도별로 보면, 서울의 매출액은 2011년에 2조 3,244억 원에서 2012년에 2조 4,513억 원, 그리고 2013년에 2조 6,405억 원으로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7.7% 증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연평균 6.6% 증가한 수치이다. 경기도 매출액 또한 2011년에 5,366억 원, 2012년에 5,615억 원, 그리고 2013년에 5,687억 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전년대비 1.3% 증가, 연평균 2.9% 증가했다. 9개 도 매출액은 2011년 9,878억 원에서 2011년 1조 255억 원으로 증가했고 2013년에는 1조 1,145억 원으로 증가하여 전년대비 8.7% 증가, 연평균 6.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8 음악산업 지역별 연도별 매출액 현황

(단위: 백만 원)

지역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증감률(%)	연평균증감률(%)
서울		2,324,361	2,451,309	2,640,542	7.7	6.6
6개 시	부산	131,863	137,703	169,115	22.8	13.2
	대구	112,492	115,266	170,907	48.3	23.3
	인천	112,779	116,143	99,611	△14.2	△6.0
	광주	15,879	16,271	17,618	8.3	5.3
	대전	58,908	60,300	32,944	△45.4	△25.2
	울산	45,417	46,443	31,945	△31.2	△16.1
	소계	477,338	492,126	522,140	△6.1	△4.6
9개 도	경기도	536,594	561,467	568,700	1.3	2.9
	강원도	50,187	51,373	52,884	2.9	2.7
	충청북도	51,816	53,415	26,466	△50.5	△28.5
	충청남도	60,065	61,484	31,973	△48.0	△27.0
	전라북도	45,235	46,351	30,947	△33.2	△17.3
	전라남도	48,994	51,214	41,022	△19.9	△8.5
	경상북도	86,209	88,602	260,280	193.8	73.8
	경상남도	90,678	93,102	93,147	0.0	1.4
	제주도	18,015	18,459	9,063	△50.9	△29.1
	소계	987,793	1,025,467	1,114,482	8.7	6.2
합계		3,789,492	3,968,902	4,277,164	7.8	6.2

그림 60 음악산업 지역별 연도별 매출액 현황



제4절 음악산업 부가가치액 구성 현황

2013년 음악산업의 부가가치액은 1조 7,049억 원으로 전년대비 2.5% 증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연평균 3.3%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액에 따른 부가가치율은 39.86%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액 구성 현황을 보면, 인건비가 1조 502억 원(61.6%)으로 가장 높았다. 경상이익은 2,079억 원(12.2%)으로 전년대비 5.9% 증가, 연평균 2.9% 증가했다. 감가상각비는 2,211억 원(13.0%)으로 전년대비 3.8% 증가, 연평균 1.7% 증가했다. 임차료는 1,125억 원(6.6%)으로 전년대비 0.9% 증가했으며, 연평균 3.4% 증가했다. 또한 순금융비용은 767억 원(4.5%)으로 전년대비와 연평균이 각각 4.8% 증가, 4.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조세공과는 365억 원(2.1%)으로 전년대비 0.3% 감소했고 연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9 음악산업 부가가치액 구성 현황

(단위: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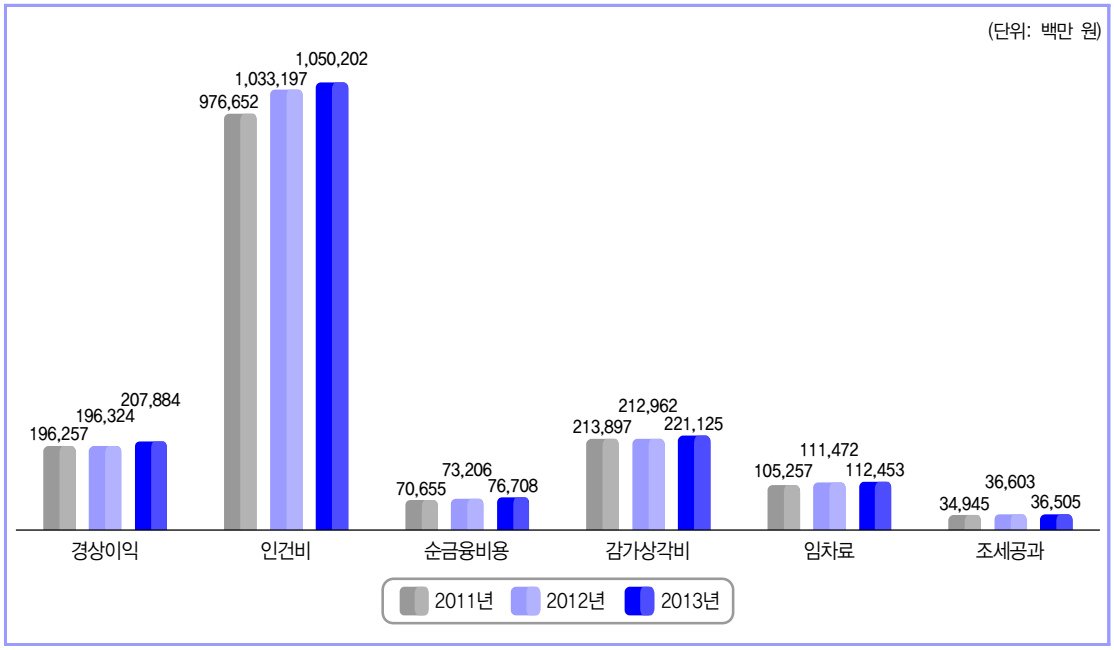
구분	매출액	부가가치액	부가가치율(%)	부가가치액 구성					
				경상이익	인건비	순금융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조세공과
음악산업	4,277,164	1,704,877	39.86	207,884	1,050,202	76,708	221,125	112,453	36,505
부가가치액 대비 비중(%)				12.2	61.6	4.5	13.0	6.6	2.1
매출액 대비 비중(%)				`4.9	24.6	1.8	5.2	2.6	0.9

표 3-3-10 음악산업 연도별 부가가치액 구성 현황

(단위: 백만 원)

부가가치액 구성 / 연도	경상이익	인건비	순금융비용	감가상각비	임차료	조세공과	부가가치액 합계
2011년	196,257	976,652	70,655	213,897	105,257	34,945	1,597,663
2012년	196,324	1,033,197	73,206	212,962	111,472	36,603	1,663,764
2013년	207,884	1,050,202	76,708	221,125	112,453	36,505	1,704,877
전년대비증감률(%)	5.9	1.6	4.8	3.8	0.9	△0.3	2.5
연평균증감률(%)	2.9	3.7	4.2	1.7	3.4	2.2	3.3

❙그림 61❙ 음악산업 연도별 부가가치액 구성 현황



제5절 음악산업 수출입액 현황[80]

2013년 음악산업의 수출액은 2억 7,733만 달러로 전년대비 18.0% 증가했고,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연평균 18.9% 증가했다. 수입액은 1,296만 달러로, 전년대비 0.2% 감소했고, 연평균 1.7%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수출액은 2011년 1억 9,611만 달러에서 2012년 2억 3,510만 달러, 2013년에는 2억 7,733만 달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수출액은 2011년 수출액의 약 1.4배까지 증가했다. 수입액은 1,296만 달러로 전년대비 0.2% 감소, 연평균 1.7% 증가했다.

표 3-3-11 음악산업 수출 및 수입액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증감률(%)	연평균증감률(%)
수출액	196,113	235,097	277,328	18.0	18.9
수입액	12,541	12,993	12,961	△0.2	1.7
수출입 차액	183,572	222,104	264,367	–	–

2013년 음악산업의 수출액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일본으로 전체 수출액의 80.0%인 2억 2,174만 달러를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로의 수출액은 3,817만 달러로 13.8%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국으로의 수출액은 1,019만 달러로 3.7%의 비중을 차지했다. 그 외에 북미로의 수출액은 102만 달러(0.4%)이며, 유럽으로의 수출액은 483만 달러(1.7%), 기타 지역으로의 수출액은 139만 달러(0.5%)로 나타났다. 즉, 일본, 중국, 동남아로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액의 97.4%를 차지하여 음악산업 수출 지역은 아시아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북미로의 수출액이 2011년에 59만 달러, 2012년에 86만 달러, 2013년에 102만 달러로 나타나 전년대비 19.5% 증가, 연평균 32.1% 증가하여 큰 증가폭을 보였다. 또한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일본의 수출액을 보면 2011년에 1억 5,794만 달러, 2011년에 1억 8,951만 달러, 2013년에 2억 2,174만 달러로 전년대비 17.0% 증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연평균 1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으로의 수출액 또한 크게 증가하여 전년대비 15.7% 증가했고 연평균 2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여전히 80%라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동남아 시장의 증감률(22.5%)과 비슷한(19.5%) 정도의 증가세를 보인 북미시장의 선전이 눈에 띈다. 이는 7주 연속 빌보드 차트 2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친 '강남 스타일'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기타 지역에서의 상승세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 정도로 미미한 수치에 불과하지만, 전년 대비 증감률에 있어서만은 154.3%라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2013년도에 들어서며 A급 케이-팝 아이돌 그룹들을 중심으로 본격화된 월드 투어 형식의 콘서트가 인기를 끈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몇몇 인기 그룹들이나 가능한 것으로 여겼던 월드 투어가 케이-팝 아이돌 그룹들을 중심으로 보다 보편화 되면서 그룹으로는 동방신기에서 인피니트까지, 지역으로는 대만, 말레

80) 음반 수출 및 수입액: 관세청, "품목별 수출입 실적",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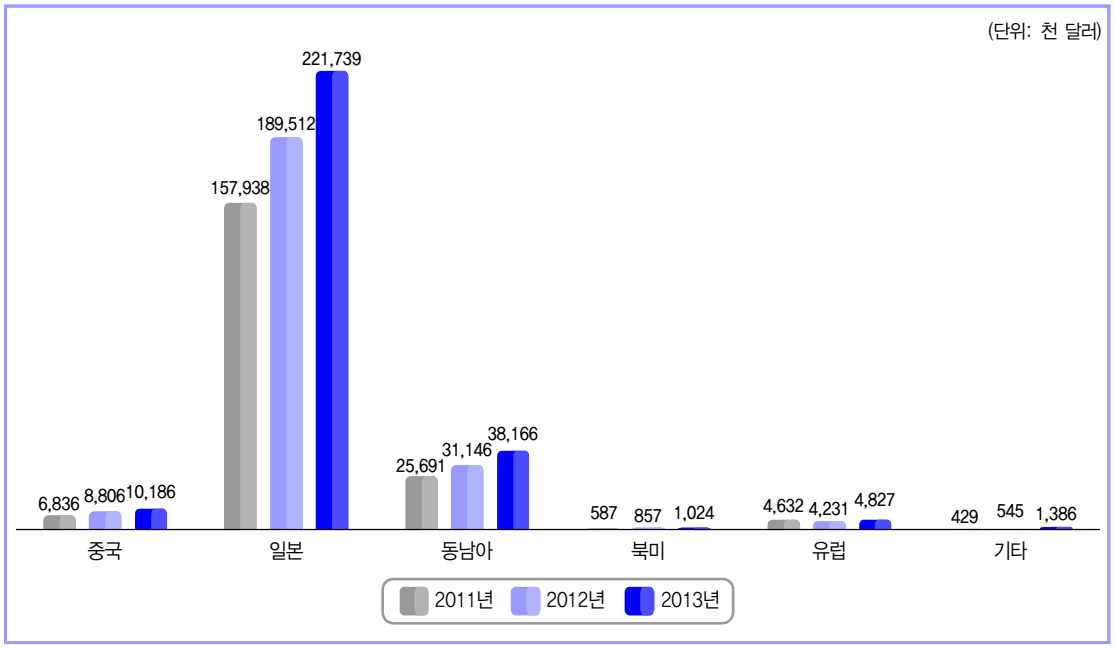
이시아 등 아시아권에서 칠레, 페루, 리마 등의 남미권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게 되었다. 2013년 데뷔 후 처음으로 월드투어를 진행했던 남성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의 경우 119일 간 총 21개국을 돌며 26회의 공연을 완료, 전 세계적으로 총 15만 명의 관객을 모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었다. 월드투어 형태의 공연상품은 지난 10여 년 간의 꾸준한 성장세로 포화 상태에 도달했다 여겨지는 음반/음원 매출의 한계를 타개할만한 새로운 한국 음악 산업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앞으로 더욱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표 3-3-12▐ 음악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중국	6,836	8,806	10,186	3.7	15.7	22.1
일본	157,938	189,512	221,739	80.0	17.0	18.5
동남아	25,691	31,146	38,166	13.8	22.5	21.9
북미	587	857	1,024	0.4	19.5	32.1
유럽	4,632	4,231	4,827	1.7	14.1	2.1
기타	429	545	1,386	0.5	154.3	79.7
합계	196,113	235,097	277,328	100.0	18.0	18.9

▌그림 62▐ 음악산업 지역별 수출액 현황



2013년 음악산업의 수입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유럽이며, 그 수입액은 720만 달러로 추정되어 전체 수입액의 55.6%를 차지했다. 일본에서의 수입액은 265만 달러로 20.4%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북미에서의 수입액은 262만 달러로 20.2%의 비중을 보였다. 그 외 다른 지역을 보면 기타 지역에서의 수입액이 33만 달러(2.5%), 중국에서의 수입액이 10만 달러(0.8%), 동남아에서의 수입액이 6만 달러(0.5%)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일본음악의 수입이 2011년 243만 달러에서 2012년 259만 달러, 2013년 265만 달러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4.5% 증가했으며, 전년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음악의 수입은 2011년 721만 달러에서 2012년 719만 달러, 2013년 720만 달러로, 이는 전년대비 0.1% 증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0.1% 감소한 수치다.

밀레니엄 이후 한국 음악 시장에 있어 해외의 모든 음악은 국내 인디음악 수준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 가운데 팝 전문 프로그램이 수 년 째 '배철수의 음악캠프' 하나 뿐인 실정이니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지 않을까. 실제로 2013년 기준 해외 음악 수입액은 수출액의 1/23에 불과한 규모로 축소되었다. 이는 한국 음악의 세계적인 유행은 물론 내수 시장 잠식으로 인해 해외 음악에 대한 국내 소비가 극도로 얼어붙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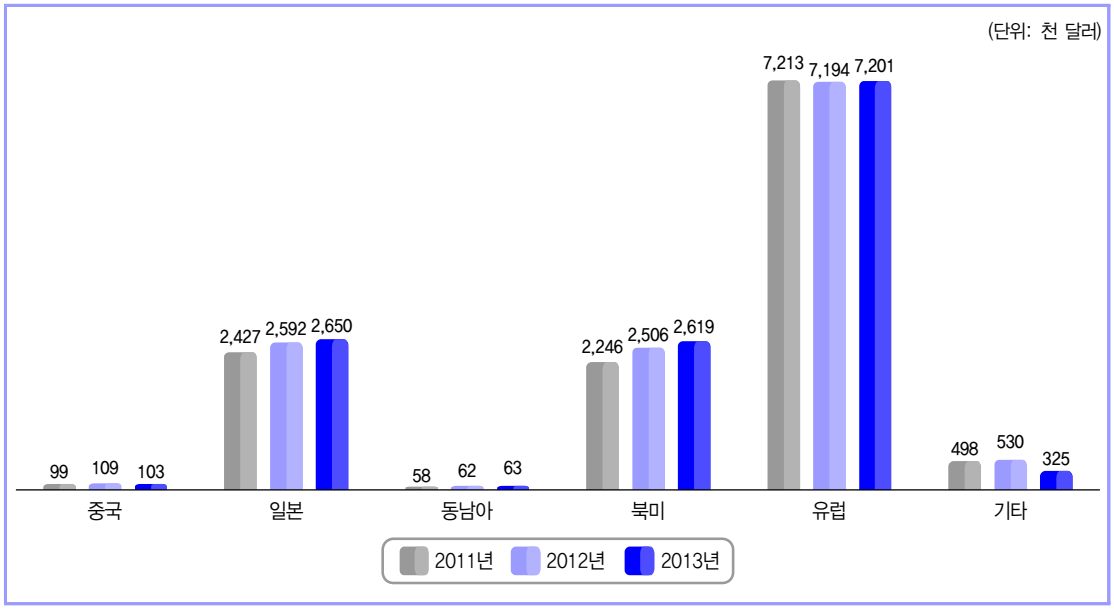
시장의 규모와 접근성, 급격한 성장 속도에 비해 오히려 감소를 기록한 중국의 지표가 눈에 띄는데, 전면적 개방 이후에도 무척 폐쇄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형태 자체가 가져다주는 부담과 언어, 문화적 괴리에서 오는 거부감이 예상보다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3-13 음악산업 지역별 수입액 현황

(단위: 천 달러)

연도 / 지역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중국	99	109	103	0.8	△5.5	2.0
일본	2,427	2,592	2,650	20.4	2.2	4.5
동남아	58	62	63	0.5	1.6	4.2
북미	2,246	2,506	2,619	20.2	4.5	8.0
유럽	7,213	7,194	7,201	55.6	0.1	△0.1
기타	498	530	325	2.5	△38.7	△19.2
합계	12,541	12,993	12,961	100.0	△0.2	1.7

그림 63 음악산업 지역별 수입액 현황



2013년 음악산업의 해외 수출방법은 해외 유통사를 접촉한다는 응답이 61.7% 로 가장 많았다. 이는 2012년 61.9%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이며, 2013년에도 여전히 해외 유통사를 통한 해외 수출이 가장 많음을 보여준다. 해외 에이전트 활용 비중은 14.5%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 15.3%였던 것에 비해 0.8%p 감소했다. 온라인 해외 판매는 9.3%, 국내 에이전트 활용은 6.2%, 해외 법인 활용은 5.1%, 그리고 해외 전시회 및 행사참여는 3.2%로 나타났다. 한편 간접 수출의 비중은 2011년 20.6%에서 2012년 20.9%로 소폭 증가했었으나, 2013년에는 20.7%로 다시 감소했다.

표 3-3-14 음악산업 해외 수출방법

(단위: %)

해외 수출방법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증감 (%p)
직접 수출	해외 전시회 및 행사참여	2.7	3.2	3.2	0.0
	해외 유통사 접촉	63.0	61.9	61.7	△0.2
	온라인 해외 판매	8.2	9.2	9.3	0.1
	해외 법인 활용	5.5	4.8	5.1	0.3
간접 수출	국내 에이전트 활용	6.9	5.6	6.2	0.6
	해외 에이전트 활용	13.7	15.3	14.5	△0.3
기타		–	–	–	–
합계		100.0	100.0	100.0	0.0

2013년 음악산업의 해외 진출형태는 완제품 수출이 69.3%였으며, LICENSE는 30.7%로 나타났다. 완제품 수출은 전년대비 0.8%p 감소했으며, LICENSE 수출은 0.8%p 증가하였다

표 3-3-15 음악산업 해외 진출형태

(단위: %)

해외 진출형태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증감(%p)
완제품수출	69.9	70.1	69.3	△0.8
LICENSE	30.1	29.9	30.7	0.8
OEM 수출	–	–	–	–
기술 서비스	–	–	–	–
기타	–	–	–	–
합계	100.0	100.0	100.0	0.0

제6절 음악산업 종사자 현황

2013년 음악산업의 종사자 수는 총 7만 7,456명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전년대비 1.2% 감소,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연평균 0.5% 감소한 수치이다.

중분류별로 보면, 2013년 음악제작업 종사자 수는 2,999명(3.9%)으로 전년대비 4.9% 증가, 2011년부터 2013년 연평균 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종사자 수는 78명(0.1%)으로 전년대비 0.5% 감소했으며, 연평균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반복제 및 배급업 종사자 수는 283명(0.4%)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했으며 연평균 0.7% 감소했다. 음반 도소매업 종사자 수는 675명(0.9%)으로 전년대비 1.7% 증가했고, 연평균 1.6% 감소하여 종사자 수의 감소세에 있다. 온라인 음악 유통업 종사자 수는 2,458명(3.2%)이며, 전년대비 0.9% 증가했고, 연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공연업 종사자 수는 3,393명(4.4%)으로 전년대비 3.4% 증가했으며, 연평균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래연습장 운영업 종사자 수는 6만 7,570명(87.2%)으로 전년대비 1.8% 감소했고, 연평균 1.0%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큰 변화 없이 소수점 단위의 변화가 감지되는 가운데 음악 기획 및 제작업과 음악 공연 기획 및 제작업에서의 상승폭이 눈에 띈다. 음악 기획 및 제작업의 경우 2010년도 이후 매해 5~6% 정도의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중대형급 이상의 기획/제작사들이 회사의 규모를 확장시켜 나가는 속도와 거의 일치한다. 특히 2010년 전후로 대부분의 대형 기획사들은 이전과는 다른 세분화된 분야로 부서를 나눠 보다 전문적으로 소속 가수들에 대한 관리를 시작한다. SM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기존의 음악 산업 구조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비주얼&아트디렉터라는 새로운 직종을 창조해내기도 했으며, 이 외에도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A&R팀이나 자사만을 위해 작업하는 전문 작곡가진과 프로듀싱 팀을 구성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인력소구가 있었다. 그 중 가장 많은 니즈가 있었던 직종은 역시 수 년 사이 부쩍 활발해진 아티스트의 해외 활동을 서포트하기 위한 해외업무 지원인력이었다.

더불어 인디 음악계를 중심으로는 최근 수 년 사이 뮤지션의 자립을 기저로 하는 1인 기업 설립의 흐름이 눈에 띄기도 했다. 특정 레이블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것이 아닌 뮤지션 스스로가 자신의 레이블을 세우고, 음반을 유통하고, 공연을 기획하는 방식이 바로 그 새로운 자립의 길이었다. 전체 산업 구조 안에서는 소수점에 불과한 미미한 움직임일지도 모르지만, 자신의 음악과 활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인으로서의 음악활동을 해 나간다는 점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어쩌면 왜곡된 구조 안에서도 어떻게든 살아남고자하는 예술가들의 간절한 몸부림처럼 보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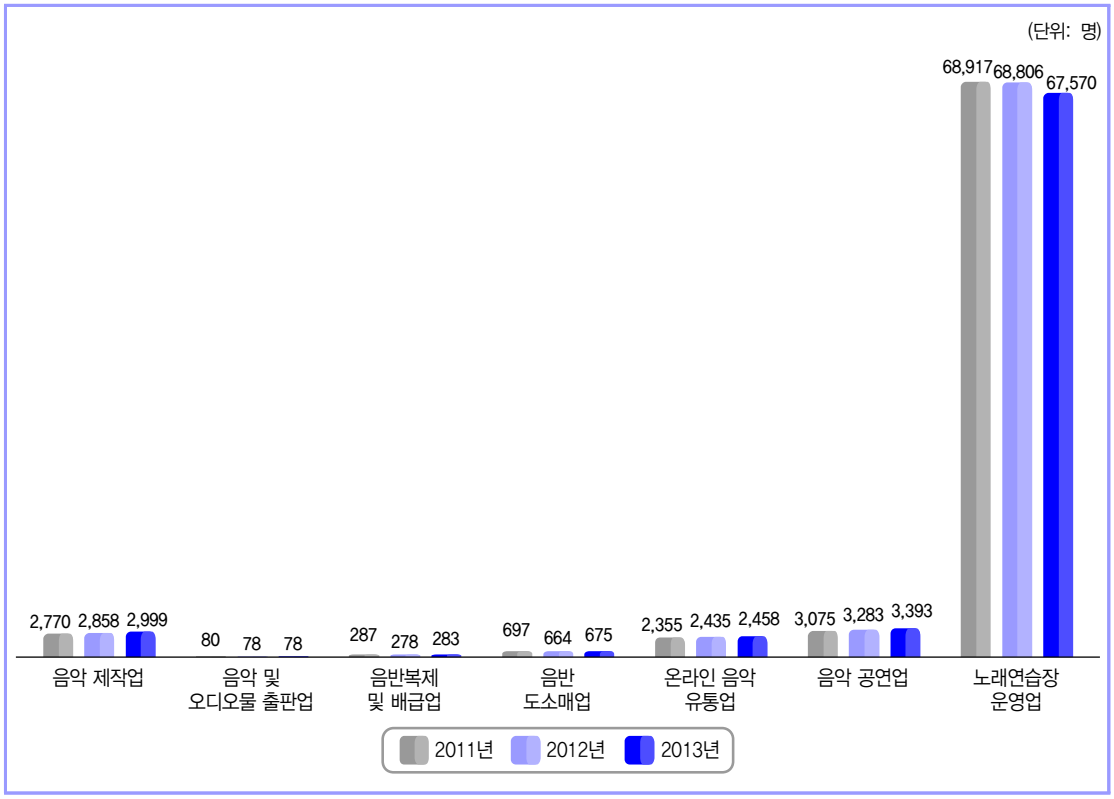
한동안 답보상태를 보이던 음악 공연 기획 및 제작업 쪽에서도 유의미한 상승세가 포착되는데, 앞서 설명했듯 그 어느 해보다 많은 숫자의 내한공연과 록 페스티벌, 뮤지컬이 공연된 해였으니만큼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공연계, 특히 음악과 관련된 공연계의 경우 전체적인 종사자의 숫자는 늘어났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닌 2년 이하의 계약직이나 경력직 프리랜서, 당일에만 근무하는 일용직이라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하다. 숫자는 늘어났을 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는 유례 없이 불안한 시장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파이를 키우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이 같은 내부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고자 하는 업계 내에서의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표 3-3-16 음악산업 업종별 연도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중분류	소분류	2011년	2012년	2013년	비중(%)	전년대비 증감률(%)	연평균 증감률(%)
음악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업	2,273	2,398	2,537	3.3	5.8	5.7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	497	460	462	0.6	0.4	△3.6
	소계	2,770	2,858	2,999	3.9	4.9	4.1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64	62	62	0.1	0.2	△1.5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16	16	16	–	△2.9	△1.4
	소계	80	78	78	0.1	△0.5	△1.5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149	145	147	0.2	1.5	△0.6
	음반 배급업	138	133	136	0.2	2.1	△0.8
	소계	287	278	283	0.4	1.7	△0.7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151	148	147	0.2	△0.7	△1.3
	음반 소매업	546	516	528	0.7	2.4	△1.6
	소계	697	664	675	0.9	1.7	△1.6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인터넷/모바일 음악서비스업	1,705	1,791	1,811	2.3	1.1	3.0
	음원대리 중개업	181	191	201	0.3	5.5	5.5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제작및제공업(CP)	469	453	446	0.6	△1.6	△2.5
	소계	2,355	2,435	2,458	3.2	0.9	2.2
음악 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2,852	3,055	3,163	4.1	3.6	5.3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223	228	230	0.3	0.7	1.5
	소계	3,075	3,283	3,393	4.4	3.4	5.0
중합계		9,264	9,596	9,886	12.8	3.0	3.3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68,917	68,806	67,570	87.2	△1.8	△1.0
합계		78,181	78,402	77,456	100.0	△1.2	△0.5

❙그림 64❙ 음악산업 업종별 연도별 종사자 현황



2013년 음악산업의 지역별 종사자 현황을 보면, 서울의 종사자 수는 2만 4,118명으로 전체의 31.1%를 차지했으며, 이는 전년대비 20.2% 증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10.7% 증가한 수치이다. 경기도의 종사자 수는 1만 4,617명으로 18.9%의 비중을 보였으며, 부산의 종사자 수는 4,553명으로 5.9%를 차지했다.

6개 광역시의 종사자 수는 1만 8,882명으로 전체의 24.4%를 차지했으며, 전년대비 11.4% 감소했고, 연평균 6.1% 감소했다. 9개 도의 종사자 수는 3만 4,456명으로 44.5%를 차지했으며, 전년대비 6.5% 감소했고, 연평균 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17 음악산업 지역별 업종별 종사자 현황(2013년)

(단위: 명)

지역 \ 업종		음악제작업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도소매업	
		음악 기획 및 제작업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음반 복제업	음반 배급업	음반 도매업	음반 소매업
서울		576	189	47	16	63	88	63	309
6개 시	부산	64	19	–	–	12	–	9	11
	대구	300	17	2	–	14	–	15	10
	인천	58	40	–	–	14	–	–	10
	광주	133	10	–	–	–	–	–	5
	대전	31	9	–	–	–	–	13	5
	울산	–	–	–	–	–	–	–	5
	소계	586	95	2	–	40	–	37	46
9개 도	경기도	857	162	11	–	45	48	40	125
	강원도	145	–	–	–	–	–	–	5
	충청북도	27	–	–	–	–	–	–	5
	충청남도	36	–	–	–	–	–	–	6
	전라북도	–	–	–	–	–	–	–	5
	전라남도	28	–	–	–	–	–	–	5
	경상북도	52	16	–	–	–	–	–	9
	경상남도	221	–	–	–	–	–	7	10
	제주도	9	–	–	–	–	–	–	1
	소계	1,375	178	11	–	45	48	47	171
합계		2,537	462	62	16	147	136	147	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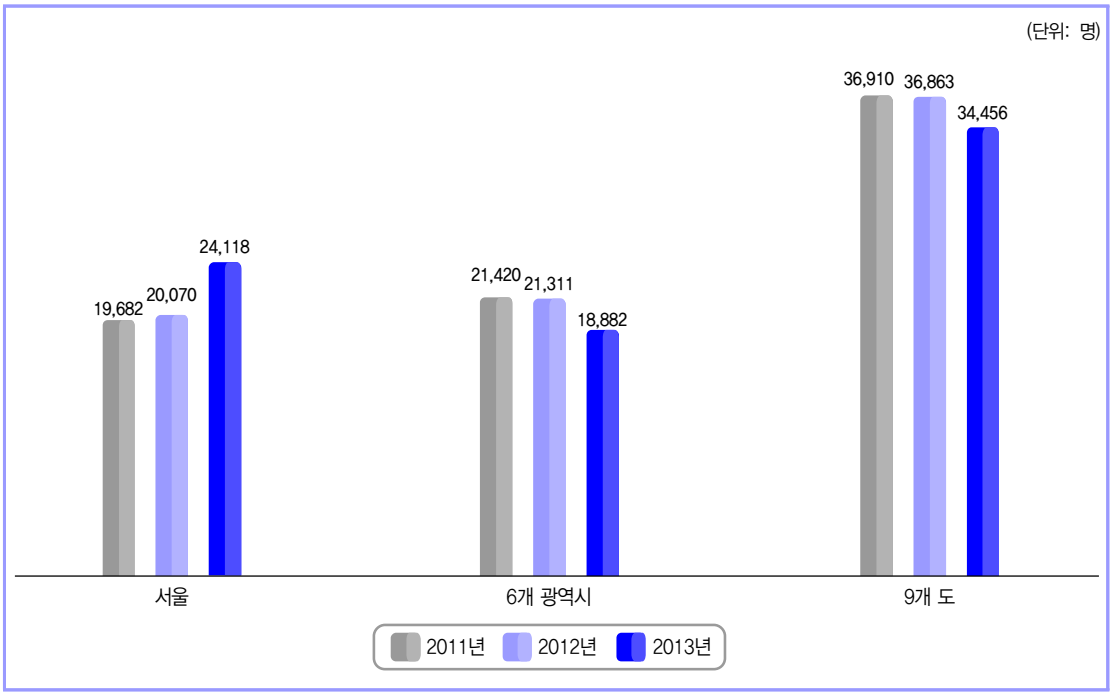
지역 \ 업종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음악 공연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합계	비중 (%)
		인터넷/모바일 음악서비스업	음원대리 중개업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서울		741	120	353	1,055	100	20,398	24,118	31.1
6개 시	부산	178	–	–	288	14	3,958	4,553	5.9
	대구	116	–	–	252	–	3,589	4,315	5.6
	인천	116	–	–	149	12	3,581	3,980	5.1
	광주	65	–	–	82	–	1,929	2,224	2.9
	대전	–	–	66	44	–	1,922	2,090	2.7
	울산	–	–	–	83	–	1,632	1,720	2.2
	소계	475	–	66	898	26	16,611	18,882	24.4
9개 도	경기도	202	81	27	492	50	12,477	14,617	18.9
	강원도	–	–	–	74	8	3,721	3,953	5.1
	충청북도	–	–	–	59	–	1,686	1,777	2.3
	충청남도	–	–	–	50	38	2,181	2,311	3.0
	전라북도	–	–	–	65	–	1,522	1,592	2.1
	전라남도	–	–	–	123	7	1,753	1,916	2.5
	경상북도	392	–	–	161	–	3,200	3,830	4.9
	경상남도	–	–	–	173	–	3,456	3,867	5.0
	제주도	–	–	–	14	–	569	593	0.7
	소계	594	81	27	1,211	103	30,564	34,456	44.5
합계		1,811	201	446	3,163	230	67,570	77,456	100.0

표 3-3-18 음악산업 지역별 연도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지역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대비증감률(%)	연평균증감률(%)
서울		19,682	20,070	24,118	20.2	10.7
6개 시	부산	5,023	5,078	4,553	△10.3	△4.8
	대구	4,640	4,606	4,315	△6.3	△3.6
	인천	4,674	4,594	3,980	△13.4	△7.7
	광주	2,490	2,474	2,224	△10.1	△5.5
	대전	2,474	2,464	2,090	△15.2	△8.1
	울산	2,119	2,095	1,720	△17.9	△9.9
	소계	21,420	21,311	18,882	△11.4	△6.1
9개 도	경기도	16,025	16,181	14,617	△9.7	△4.5
	강원도	2,292	2,248	3,953	75.8	31.3
	충청북도	2,205	2,163	1,777	△17.8	△10.2
	충청남도	2,829	2,797	2,311	△17.4	△9.6
	전라북도	1,976	1,954	1,592	△18.5	△10.2
	전라남도	2,232	2,249	1,916	△14.8	△7.3
	경상북도	4,144	4,106	3,830	△6.7	△3.9
	경상남도	4,474	4,435	3,867	△12.8	△7.0
	제주도	733	730	593	△18.8	△10.1
	소계	36,910	36,863	34,456	△6.5	△3.4
합계		78,012	78,244	77,456	△1.0	△0.4

그림 65 음악산업 지역별 연도별 종사자 현황



2013년 음악산업의 고용형태별 성별 종사자 현황을 보면, 정규직 남자 종사자 수는 2만 4,570명으로 31.7%의 비중을 보였고, 정규직 여자는 2만 9,313명으로 37.8%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은 남자는 1만 1,112명으로 14.4%를 차지했고, 비정규직 여자는 1만 2,461명으로 1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분별로 보면, 음악제작업은 정규직 남자 종사자 수가 1,622명, 정규직 여자는 1,027명이었고, 비정규직 남자는 186명, 비정규직 여자는 164명으로 나타났다.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은 정규직 남자가 45명, 정규직 여자는 23명이었으며, 비정규직 남자는 6명, 비정규직 여자는 3명으로 조사됐다. 음반복제 및 배급업은 정규직 남자가 206명, 정규직 여자는 29명, 비정규직 남자가 17명, 여자가 30명 이었다. 음반 도소매업은 정규직 남자가 341명, 정규직 여자는 261명, 비정규직 남자는 40명, 그리고 비정규직 여자는 34명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음악 유통업은 정규직 남자가 1,416명으로 온라인 음악 유통업 종사자 중 가장 많았으며, 정규직 여자는 680명, 비정규직 남자는 213명, 비정규직 여자는 149명으로 조사됐다. 음악 공연업은 정규직 남자와 정규직 여자는 각각 1,663명, 1,197명이며, 노래연습장 운영업은 정규직 남자와 정규직 여자가 각각 1만 9,277명, 2만 6,097명으로 나타났다.

표 3-3-19 음악산업 고용형태별 성별 및 업종별 종사자 현황(2013년)

(단위: 명)

업종 \ 고용형태/성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음악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업	1,245	49.1	970	38.2	169	6.7	154	6.0	2,537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	377	81.6	57	12.3	17	3.7	11	2.4	462
	소계	1,622	54.1	1,027	34.2	186	6.2	164	5.5	2,999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32	51.6	22	35.5	5	8.1	3	4.8	62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13	83.4	1	8.3	1	8.3	–	–	16
	소계	45	57.7	23	29.5	6	8.7	3	4.1	78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124	84.4	16	10.9	4	2.7	3	2.0	147
	음반 배급업	83	61.0	13	9.6	13	9.5	27	19.9	136
	소계	206	72.9	29	10.3	17	6.1	30	10.7	283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74	50.1	42	28.3	21	14.1	11	7.5	147
	음반 소매업	267	50.6	219	41.5	19	3.5	23	4.4	528
	소계	341	50.5	261	38.7	40	5.8	34	5.0	675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인터넷/모바일 음악서비스업	1,064	58.8	470	26.0	157	8.6	120	6.6	1,811
	음원대리 중개업	97	48.0	58	28.7	24	11.9	23	11.4	201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제작및제공업(CP)	255	57.2	152	34.1	32	7.2	7	1.5	446
	소계	1,416	57.6	680	27.7	213	8.7	149	6.0	2,458
음악 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1,575	49.8	1,094	34.6	287	9.1	209	6.5	3,163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88	38.3	103	44.9	20	8.9	18	7.9	230
	소계	1,663	49.0	1,197	35.3	306	9.0	227	6.7	3,393
중합계		5,293	53.5	3,217	32.5	769	7.8	608	6.2	9,886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19,277	28.5	26,097	38.6	10,343	15.4	11,853	17.5	67,570
합계		24,570	31.7	29,313	37.8	11,112	14.4	12,461	16.1	77,4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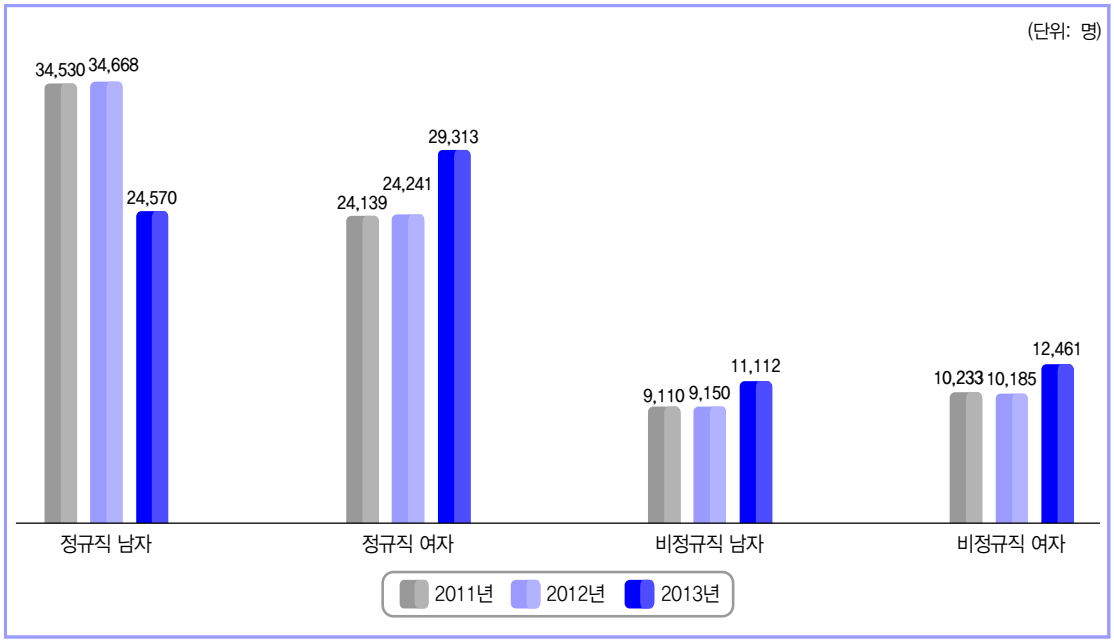
증감률을 보면, 정규직 남자와 비정규직 남자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각각 29.1% 감소, 21.0% 증가했다. 정규직 남자 종사자 수는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연평균 15.6% 감소했고, 비정규직 남자는 연평균 10.4% 증가했다. 정규직 여자는 전년대비 20.9% 증가, 연평균 10.2% 증가했으며, 비정규직 여자는 전년대비 22.4% 증가, 연평균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0 음악산업 고용형태별 성별 및 연도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고용형태 / 성 · 연도	정규직				비정규직				합계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종사자 수	비중(%)	
2011년	34,530	44.3	24,139	30.9	9,110	11.7	10,233	13.1	78,012
2012년	34,668	44.3	24,241	31.0	9,150	11.7	10,185	13.0	78,244
2013년	24,570	31.7	29,313	37.8	11,112	14.4	12,461	16.1	77,456
전년대비증감률(%)	△29.1	–	20.9	–	21.0	–	22.4	–	△1.0
연평균증감률(%)	△15.6	–	10.2	–	10.4	–	10.4	–	△0.4

그림 66 음악산업 고용형태별 성별 및 연도별 종사자 현황



2013년 음악산업의 직무별 종사자 현황을 보면, 제작직 종사자 수가 3,345명으로 전체 종사자 수의 33.8%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였다. 다음은 기타(유통)직 종사자 수가 2,399명(24.3%), 사업기획직은 1,608명(16.3%), 관리직은 1,380명(14.0%), 마케팅/홍보직은 913명(9.2%), 연구개발직은 241명(2.4%)으로 조사됐다.

표 3-3-21 음악산업 직무별 업종별 종사자 현황(2013년)

(단위: 명)

업종 \ 직무		사업기획	관리	제작	마케팅/홍보	연구개발	기타(유통)	합계
음악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업	445	355	977	314	64	382	2,537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	44	54	290	12	4	58	462
	소계	489	409	1,267	326	68	440	2,999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9	12	23	4	–	14	62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	4	11	1	–	–	16
	소계	9	16	34	5	–	14	78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8	24	109	–	–	6	147
	음반 배급업	5	28	24	15	–	64	136
	소계	13	52	133	15	–	70	283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11	26	2	16	–	92	147
	음반 소매업	19	118	15	35	–	341	528
	소계	30	144	17	51	–	433	675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인터넷/모바일 음악서비스업	255	212	380	136	66	761	1,811
	음원대리 중개업	14	37	–	12	6	132	201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제작및제공업(CP)	59	24	278	15	–	71	446
	소계	328	273	658	163	72	964	2,458
음악 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714	435	1,172	332	101	410	3,163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25	51	64	21	–	68	230
	소계	739	486	1,236	353	101	478	3,393
중합계		–	–	–	–	–	–	–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	–	–	–	–	–	–
합계		1,608	1,380	3,345	913	241	2,399	9,886
비중(%)		16.3	14.0	33.8	9.2	2.4	24.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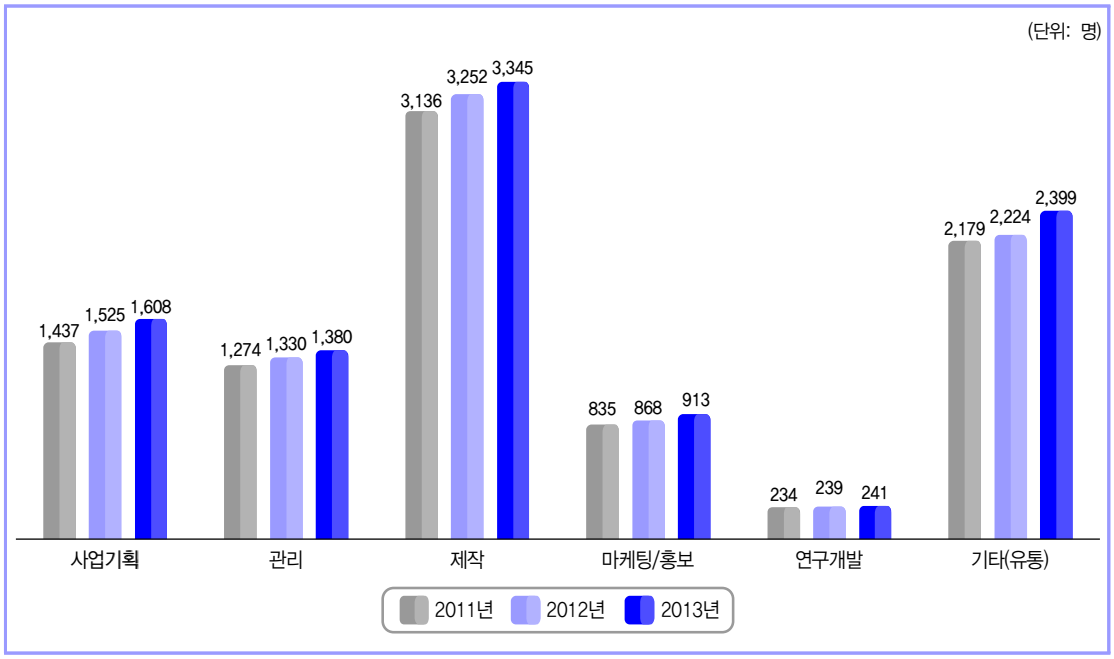
증감률을 보면, 연구개발 직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의 종사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직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0.8% 증가했고, 연평균 증감률은 1.5% 증가했다. 마케팅/홍보직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5.2% 증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직은 전년대비 3.8% 증가했으며, 연평균 4.1% 증가했고, 제작직은 전년대비 2.9% 증가, 연평균 3.3% 증가했다. 기타(유통) 직무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7.9% 증가했고, 연평균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2 음악산업 직무별 연도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직무 / 연도	사업기획	관리	제작	마케팅/홍보	연구개발	기타(유통)	합계
2011년	1,437	1,274	3,136	835	234	2,179	9,095
2012년	1,525	1,330	3,252	868	239	2,224	9,438
2013년	1,608	1,380	3,345	913	241	2,399	9,886
전년대비증감률(%)	5.4	3.8	2.9	5.2	0.8	7.9	4.7
연평균증감률(%)	5.8	4.1	3.3	4.6	1.5	4.9	4.3

그림 67 음악산업 직무별 연도별 종사자 현황



2013년 음악산업의 학력별 종사자 현황을 보면, 대학교를 졸업한 종사자 수가 8,495명으로 85.9%의 가장 큰 비중을 보였고, 전문대학을 졸업한 종사자 수는 590명으로 6.0%를 차지했으며, 고등학교 졸업 이하는 537명으로 5.4%, 대학원 졸업 이상은 264명으로 2.7%의 가장 낮은 비중을 나타냈다.

표 3-3-23 음악산업 학력별 업종별 종사자 현황(2013년)

(단위: 명)

업종 \ 학력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합계
음악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업	61	111	2,316	49	2,537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	26	60	368	8	462
	소계	87	171	2,684	57	2,999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2	12	45	3	62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	4	12	–	16
	소계	2	16	57	3	78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11	22	114	–	147
	음반 배급업	13	19	101	3	136
	소계	24	41	215	3	283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21	29	97	–	147
	음반 소매업	147	45	336	–	528
	소계	168	74	433	–	675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인터넷/모바일 음악서비스업	45	74	1,660	32	1,811
	음원대리 중개업	5	8	187	1	201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제작및제공업(CP)	20	33	385	8	446
	소계	70	115	2,232	41	2,458
음악 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181	170	2,662	150	3,163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5	3	212	10	230
	소계	186	173	2,874	160	3,393
중합계		–	–	–	–	–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	–	–	–	–
합계		537	590	8,495	264	9,886
비중(%)		5.4	6.0	85.9	2.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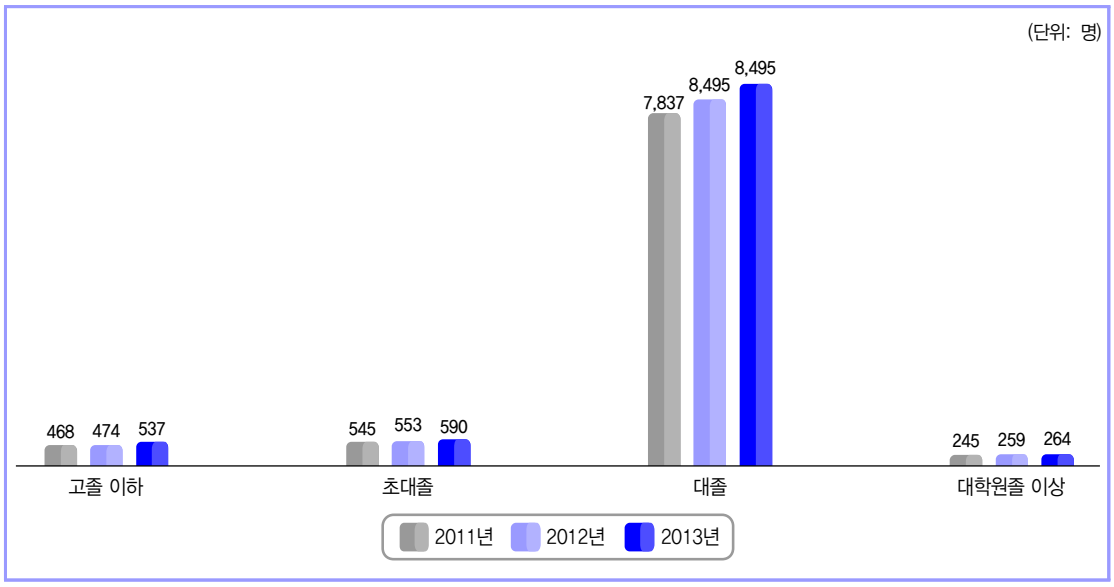
연도별로 보면, 대학원을 졸업한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1.9% 증가했으며,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연평균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대학교 졸업 이상인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4.2% 증가했고, 연평균 4.1% 증가했다. 전문대학을 졸업한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6.7%, 연평균 4.0% 증가했다.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13.1% 증가했고, 연평균 7.1% 증가했다.

표 3-3-24 음악산업 학력별 연도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학력 / 연도	고졸 이하	초대졸	대졸	대학원졸 이상	합계
2011년	468	545	7,837	245	9,095
2012년	474	553	8,152	259	9,438
2013년	537	590	8,495	264	9,886
전년대비증감률(%)	13.3	6.7	4.2	1.9	4.7
연평균증감률(%)	7.1	4.0	4.1	3.8	4.3

그림 68 음악산업 학력별 연도별 종사자 현황



2013년 음악산업의 연령별 종사자 현황을 보면, 29세 이하 종사자 수가 2,969명으로 전체의 30.0%를 차지했다. 30세 이상 34세 이하인 종사자 수는 2,927명으로 29.6%를 차지했으며, 35세 이상 39세 이하는 2,446명으로 24.7%를 차지했고, 40세 이상은 1,544명으로 15.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5 음악산업 연령별 업종별 종사자 현황(2013년)

(단위: 명)

업종 \ 연령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합계
음악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업	794	806	565	372	2,537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	114	154	130	64	462
	소계	908	960	695	436	2,999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15	19	13	15	62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	–	6	10	16
	소계	15	19	19	25	78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46	44	36	21	147
	음반 배급업	33	48	32	23	136
	소계	79	92	68	44	283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25	32	55	35	147
	음반 소매업	97	122	143	166	528
	소계	122	154	198	201	675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인터넷/모바일 음악서비스업	523	546	513	229	1,811
	음원대리 중개업	52	64	48	37	201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제작및제공업(CP)	145	147	113	41	446
	소계	720	757	674	307	2,458
음악 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1,079	848	730	506	3,163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46	97	62	25	230
	소계	1,125	945	792	531	3,393
중합계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	–	–	–	–
합계		2,969	2,927	2,446	1,544	9,886
비중(%)		30.0	29.6	24.7	15.6	100.0

연도별로 보면 29세 이하인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6.3% 증가했고 2011년에서 2013년까지 연평균 5.3% 증가했으며, 30세 이상 34세 이하는 전년대비 4.3% 증가했고 연평균은 4.0% 증가했다. 35세 이상 39세 이하는 전년대비 2.0% 증가했고 연평균 또한 2.7% 증가했으며, 40세 이상은 전년대비 7.2% 증가, 연평균 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26 음악산업 연령별 연도별 종사자 현황

(단위: 명)

연령 / 연도	29세 이하	30~34세	35~39세	40세 이상	합계
2011년	2,679	2,707	2,318	1,391	9,095
2012년	2,794	2,806	2,398	1,440	9,438
2013년	2,969	2,927	2,446	1,544	9,886
전년대비증감률(%)	6.3	4.3	2.0	7.2	4.7
연평균증감률(%)	5.3	4.0	2.7	5.4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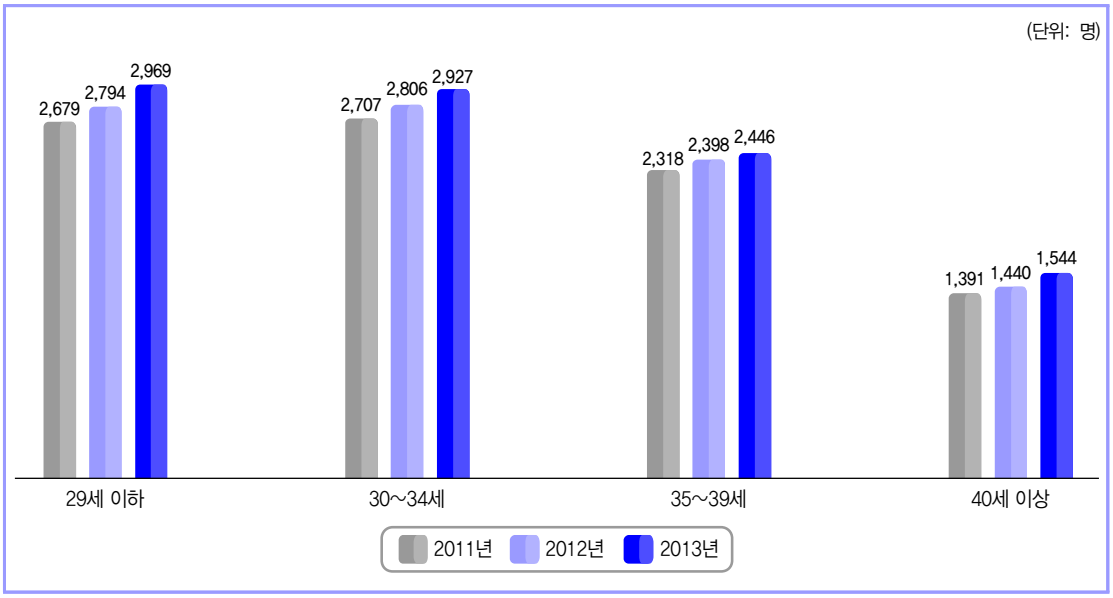



그림 69 음악산업 연령별 연도별 종사자 현황